

뮌헨 도심 공공공간의 변화

마리엔호프 Marienhof

홍성완
뮌헨공과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박영석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도심 속 공공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그에 따른 필요가 변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물리적 변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독일 뮌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구도심의 약 60%가 파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 지금의 마리엔호프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당시 구도심의 한가운데로 폭격의 피해를 면하지 못했고, 전쟁 후 도시복원 과정에서 이 지역은 시대에 따라 그 얼굴을 달리했다. 오늘날 마리엔호프는 뮌헨 시내의 유일한 공지이자 다른 유럽의 도시가 가지지 못한 유형의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

뮌헨이 독일의 주요 도시로서 전쟁을 겪으며 그 피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도심 내 공공공간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마리엔호프를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폐허가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 및 설계방안을 되짚어 보겠다. 그리고 시간의 지나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이 공간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 Richard Bauer, *Geschichte der Stadt München*, München: Beck, 1992, p.396.

** Fey Hans, *Marienhof-Konzepte der Kunst*, München: Prestel, 1999, p.7.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리엔호프 부지

©LHS München Baureferat

뮌헨의 성장과 마리엔호프의 시대별 변화

뮌헨의 발생과 마리엔호프 (1158~1947)

하인리히(Heinrich der Löwe, 1129~1195) 공작은 1158년 중세 유럽의 교역로인 소금길에 면해 있던 지금의 뮌헨 부지에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였고 이것을 뮌헨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최초 성곽의 면적은 약 17ha로 그 안에는 2,500여 명이 거주하였으며 여기에 마리엔호프 부지가 일부 포함되었다. 14세기 중반 상권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 첫 번째 성곽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후 500여 년간의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도시성장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구조 확장이었다.*** 이로써 마리엔호프 부지는 완전히 성곽내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마리엔호프가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되기 이전에는 각종 상점, 병원, 변호사 사무소 등이 위치하며 명망 있는 가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전후 복원 과정에서 그 최초 구조는 북측의 Schrammerstr.가 서쪽으로 Maffeistr.와 연결되도록 방향이 전환되면서 현재 마리엔호프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전후복구와 도시의 재건 (1945~1970)

전쟁의 폐허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발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5월부터 뮌헨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 그해 8월 전쟁 이전의 모습을 기본으로 뮌헨을 재건하기로 결론지었다.**** 구도심에 위치한 마리엔호프 부지의 잔해가 정리된 1948년 뮌헨재건작업에 참여하였던 건축가이자 교수인 아벨(Adolf Abel, 1882~1969)은 보차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차 없는 도심’을 제안하였으나, 차량이용을 선호하였던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마리엔호프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이른바 ‘차량 운전자를 위한 오아시스(Oase für Autofahrer)’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58년 뮌헨시는 마리엔호프 이용에 대한 반성으로 최초의 현상설계공모를 내걸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이 설계요건으로 제시되었다. 1961년 건축가 브랑카(Alexander von Branca, 1919~2011)의 설계가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뽑혔다.***** 브랑카는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동시에 신시청사를 포함한 부지 내의 건물들이 서로 일직선의 다리로 연결된 건축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이 건물군은 가운데 휴식공간을 감싸도록 배치되었다.

한편 이미 1957년 뮌헨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이 요청되었다. 1966년부터 1971년까지 마리엔호프에서는 지하철 3·6호선 선로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지에 지하철 출입구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뮌헨시는 1966년 브랑카에게 설계수정을 요구하였고 1968년 그 첫 번째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마리엔호프가 1971년부터 3년간 뮌헨올림픽(1972)을 위한 홍보부지로 쓰이기로 결정되면서 수정안에 대한 시공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 Gehard Gross, *München wie geplant*, München: Schiermeier, 2004, p.20.

** Fey Hans, op.cit., p.9.

*** Richard Bauer, op.cit., p.66.

**** Gehard Gross, *München wie geplant*, München: Schiermeier, 2004, p.112.

***** LHS München, *Baugeschichte und Visionen—Historie des Marienhofes*[pdf-document online],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baureferat/wettbewerbsergebnisse/marienhof.html>, 2004, p.11, 2014.11.03.

***** Ibid., p.29.

***** Richard Bauer, *Geschichte der Stadt München*, München: Beck, 1992, p.413.

***** LHS München, op.cit., p.31.



©LHS München Baurefer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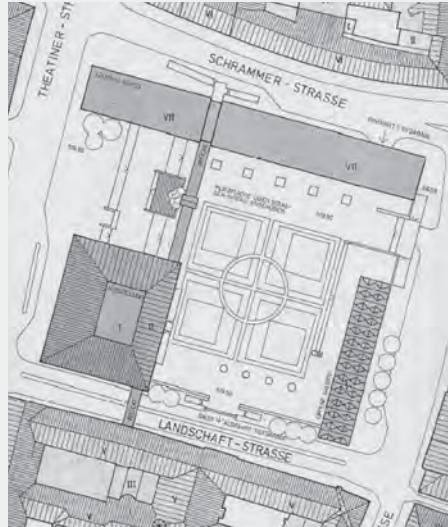


©LHS München Baureferat

주차장으로 쓰일 당시의 마리엔호프(1948~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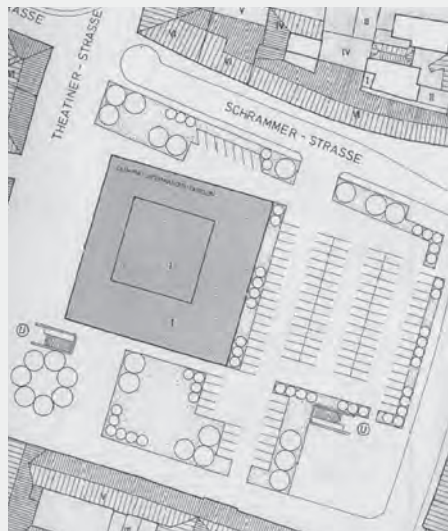
©LHS München Baureferat



©LHS München Baureferat

브랑카의 설계안(1961)

제2차 세계대전 후 변화된 마리엔호프의 구조



©LHS München Baureferat

녹지가 일부 추가된 마리엔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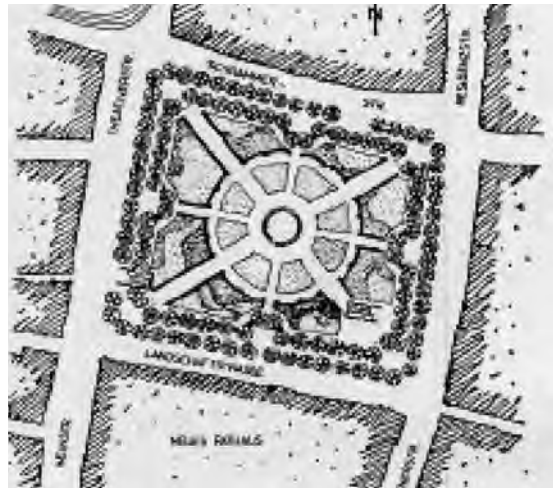
마리엔호프 용도에 관한 고민 (1971~1990)

뮌헨 시민들의 목소리

뮌헨시는 마리엔호프를 뮌헨올림픽 홍보부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 추가적으로 녹지를 계획했다. * 올림픽 이후의 부지용도에 대해서 끈질기게 고민되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해당 부지에 고밀도의 건설 계획을 기대했지만 녹지를 염원하는 시민 여론과의 대립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엔호프의 이러한 과도 기적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시민과 뮌헨시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는 동안 마리엔호프에서는 와인축제, 크리스마스시장을 비롯한 각종 행사 등이 열렸다. ***

1980년 브랑카는 원안에 비해 고밀도로 배치된 건물과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안배한 두 번째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뮌헨시 산하 도시계획심의위원회(Kommission für Stadtgestaltung)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실시된 시민공청회에서 이는 건축물 위주의 계획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를 계기로 마리엔호프에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뮌헨시는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같은 해 2명의 조경가 쉐본(Adelheid von Schönborn)과 카거러(Karl Kagerer) 교수에게 '브랑카의 녹지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대상에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고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위임하였다. 2년 후 두 설계안이 제시되었을 때 쉐본의 설계안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

1985년 시의회는 '마리엔호프, 회색인가 녹색인가?(Marienhof-grau oder grün?)'를 주제로 부지의 이용방식과 부피감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건축가 브라운펠스(Stephan Braunfels, 1950~)의안이 당선되었고(1987), 같은 해 시의회는 브라운펠스에게 실시설계를 위임하였다. 브라운



쉐본의 설계안(1982)

펠스는 이 설계안에서 수목 열식(row-planting)과 유리회랑으로 대상지를 둘러싸도록 계획하여 부피감을 살렸으며,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카페와 전시공간을 제시해 이용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한편 뮌헨시는 예산 부족으로 시공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설계안이 마음에 들었던 익명의 기부자가 총 건설비용 중 25%를 부담하겠다고 나타났다. ***** 1988년 시의회는 착공을하기로 결정했다. ***** 1989년 착공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랑 건설을 위한 비계(飛階)가 모습을 드러내자 논란이

* Ibid., p.15.

** FeyHans, *Marienhof-Konzepte der Kunst*, München: Prestel, 1999, p.13.

*** Ibid., p.17.

**** LHS München, *Baugeschichte und Visionen—Historie des Marienhofes*[pdf-document online],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baureferat/wettbewerbsergebnisse/marienhof.html>, 2004, pp.33-34, 2014.11.03.

***** Karl Stankiewicz, *München-Stadt der Träume*, München: Schiermeier, 2005,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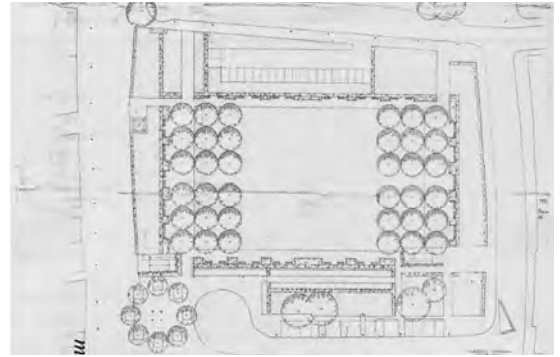
***** LHS München, op.cit., p.42.

생기기 시작하였다. 도심의 휴식공간으로서 열려 있는 녹지를 기대하였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결국 익명의 기부자도 기부를 철회하기에 이르렀고, 시민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순수한 녹지에 대한 요구가 가열되었다. 더불어 뮌헨시 문화재 보호관리청(Landesamt für Denkmalpflege)은 초기 공사로 인해 드러난 땅 속에서 유물의 흔적을 발견했고,* 시의회는 브라운펠스의 설계안에 대한 시공을 철회하고 문화재 발굴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발굴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흔적들을 발견하는 등의 큰 성과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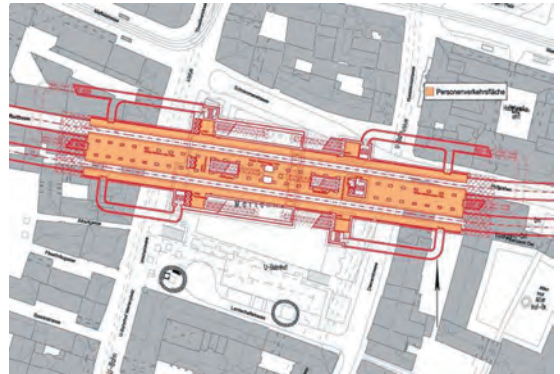
임시활용과 대안의 모색 (1991~2014) 다양한 시도와 배려

브라운펠스의 설계안은 뮌헨시의 예산부족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1990년 뮌헨시 건설관리국(Baureferat)은 브라운펠스의 설계안 가운데 식재계획만을 적용하여 마리에nhof에 녹지와 주차장을 계획했다.*** 여론에 맞게 녹지면적은 현저하게 늘어났고 시당국은,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차장을 위해 면적을 할애하였다. 이후 마리에nhof 용도에 대한 논의는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1997년 히포문화재단(Hypo-Kulturstiftung)****은 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예술을 통해 미래의 이용방식과 그 기능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술가 10명을 초청하여 공모전과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히포문화재단은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마리에nhof의 실정과 문제점, 예술가들의 향후 작업방향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히포문화재단 이사장 파이(Hans Fey)는 모두에게 마리에nhof는 ‘뮌헨 구도심의 마지막 남은 비어 있는 땅’으로 다른 어떤 유럽의 도시도 이와 같은 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가능성의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녹지면적이 늘어난 마리에nhof



마리에nhof 기차역 노선 계획도

어 매우 불만족스러운 현 실정에 대해 고민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공론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공모전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뮌헨 도시구조와 그 결을 같이하는 동시에 마리에nhof의 위치, 의미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한 정신적이면서 문화적인 내용을

* Karl Stankiewicz, op.cit. p.53.

** LHS München, op.cit., p.43.

*** Ibid., p.21.

**** 히포문화재단은 1983년부터 주로 시각예술과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 자본은 1,150만 유로에 달한다. (Hypo-Kulturstiftung, <http://www.hypo-kulturstiftung.de/ueberun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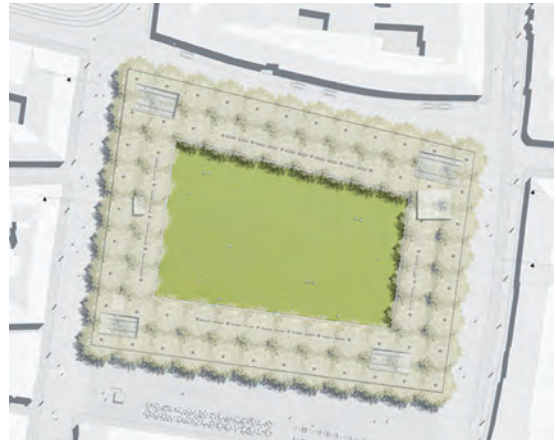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시회는 1999년 1월 시청에서 열렸다. 3주 동안 1만 3,000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하였고, 그 의견을 쪽지에 써서 제출하거나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다. 전시 마지막 날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현 상태의 마리엔호프가 '죽은 광장'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99년 뮌헨전문대학(Fachhochschule München) 건축학과 겨울학기에서는 디플롬(Diplom, 학석사 통합 학위) 졸업설계 주제를 마리엔호프로 선정하였고, 뮌헨시는 2005년 마리엔호프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를 열었다. 이 공모전의 목적은 마리엔호프하부에 들어서게 될 에스반(S-Bahn, 국철) 기차역을 고려하여 마리엔호프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있었다.

2006년 뮌헨시는 베를린 소재 bbz 조경설계사무소(bbz landschaftsarchitekten)의 설계를 현실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설계는 전통적인 소재와 간단한 구성방식을 기본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업지역과 대비되는 '간결한 마리엔호프'의 모습을 제시했다. 요컨대 1997년의 공모전과 1999년의 전시회를 통해 마리엔호프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뮌헨시가 그 논의를 받아들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히포문화재단의 노력이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한편 에스반 기차역 착공 이전, 부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착공하면 뮌헨의 시작과 함께 8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뤄온 마리엔호프의 역사적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루어진 이 발굴에는 생물학, 인류학, 연륜연대학(dendrochronology), 건축사학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해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bbz landschaftsarchitekten



bbz landschaftsarchitekten 설계안

발굴이 완료된 이후부터 에스반 기차역이 완공될 시점까지 마리엔호프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2012년 7월 시의회에서 임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독일철도청(Deutsche Bahn AG)과 바이엔주 기획재정부(Wirtschaftsministerium Bayern)는 마리엔호프 기

* Fey Hans, *Marienhof-Konzepte der Kunst*, München: Prestel, 1999, p.11.

** Fey Hans, *Marienhof-Konzepte der Kunst*, München: Prestel, 1999, p.84.

*** Martin Bernstein, „Sensationeller Griff ins Klo“, *Süddeutsche Zeitung*, 2011.10.27, p.R4.

차역 공사가 2015년 초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현대 도심 공공공간과 사회적 합의

독일의 남부지방 최대의 도시로서 뮌헨은 바이언주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후 복구와 성장의 과정을 거쳐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뮌헨의 중심에 위치한 마리엔호프는 시대별로 그 쓰임을 달리하였다. 전후 주차장으로 쓰이던 마리엔호프에는 1972년 개최된 뮌헨 올림픽을 계기로 부분적으로 녹지가 조성되기도 했다.

뮌헨시는 현상설계공모를 여는 등 마리엔호프의 이용 및 계획에 다양한 가능성을 건주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녹지공간으로서 마리엔호프를 기대했고, 그에 따라 순수한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현상설계 당선안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반려되기도 하였고, 시장국의 예산부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착공 초기 발견된 중세시대의 흔적으로 인해 공사가 백지화되고 고고학적 발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글은 뮌헨마리엔호프의 시대별 이용과 그 변화 과정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시민사회와 시

* Baureferat, Vorlagen-Nr.: 08-14/V 11040
[pdf-document online], <http://www.ris-muenchen.de/RII/RII/DOK/SITZUNGSVORLAGE/2878952.pdf>, 2013, p.2.



마리엔호프의 현재 모습

당국의 논의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심 공공공간은 시대에 맞춰 그 모습이 바뀌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마리엔호프의 그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그것을 이끌어 온 원동력은 공공공간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련 시당국과 시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에 대한 당국의 민감한 대응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Richard Bauer, *Geschichte der Stadt München*, München: Beck, 1992.
- Richard Bauer, *Fliegeralarm-Luftangriffe auf München 1940-1945*, München: Hugendubel, 1987.
- Richard Bauer, *Münchens Altstadt*, München: Historika Photoverlag, 1994.
- Christian Behrer, *Das unterirdische München*, München: Buchendorfer, 2001.
- Gehard Gross, *München wie geplant*, München: Schiermeier.
- Heinrich Habel, *Der Marstallplatz in München*, München: Lipp, 1993.
- Fey Hans, *Marienhof-Konzepte der Kunst*, München: Prestel, 1999.
- Matthias Hell, *München '72*, München: München Verlag, 2012.
- Brigitte Huber, *Das Neue Rathaus in München*, Ebenhausen bei München: Döllig und Galitz, 2006.
- Max Leuprecht, „Die Grüne Mitte Münchens“, *Garten+Landschaft*, 2007/2.
- Andreas Meck, *Schönheit für alle*, München: Fachhochschule, 2000.
- Karl Meitiger, *Das Neue München(1946)*, München: Heidhausen-Verlag, 1986.
- Wolfgang Pischek, Holger Junghardt, *Die Münchner U-Bahn*, München: GeraMond Verlag, 2012.
- Karl Stankiewicz, *München-Stadt der Träume*, München: Schiermeier, 2005.

신문기사

- Martin Bernstein, „Sensationeller Griff ins Klo“, *Süddeutsche Zeitung*, 2011.10.27.
- Alfred Dürr, „Ausweisung als Grünfläche gesichert“, *Süddeutsche Zeitung*, 1992.01.16.

참고 사이트

-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baureferat/wettbewerbsergebnisse/marienhof.html>
- http://www.ris-muenchen.de/RII/RII/ris_vorlagen_dokumente.jsp?risid=2871726
- <http://www.2.stammstrecke-muenchen.de/das-projekt/archaeologie/>
- <http://www.2.stammstrecke-muenchen.de/das-projekt/bahnhoefe/>
- <http://www.hypo-kulturstiftung.de/index.html>
- <https://www.competitionline.com/en/tenders/3948>
- <http://bbz.la/projekt/marienhof/>
- <http://bbz.la/projekt/zwischenbegrundung-marienhof-muenchen-d/>